

# KIA 내야에 뜬 '신성' 김규성



KIA 내야의 선풍으로 주목받는 김규성이 지난 21일 한화와의 경기에서 데뷔 홈런을 기록했다. 사진은 홈런을 치고 들어온 김규성을 '무관심 세리머니'로 맞은 KIA 덕아웃. 잠시 뒤 KIA 선수들이 일제히 김규성 주변으로 몰려 축하 인사를 하며 사람들을 웃게 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김선빈 부상에 2루수 투입 ... 안정적 수비로 눈길 윌리엄스 감독 "타격 아쉬움 덮을만큼 원더풀" 극찬 21일 한화전서 데뷔 첫 홈런...최고 백업 카드 수확

'원더풀'을 부른 KIA 타이거즈 내야수 김규성이 '원더 보이'로 뜰까?  
최근 KIA 타이거즈 윌리엄스 감독의 입에서 '원더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원더풀'이라는 찬사를 이끈 인물은 바로 김규성이었다.  
취재진과의 자리에서 김규성의 수비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윌리엄스 감독은 가장 먼저 '원더풀'을 이야기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캠에서는 두 팀으로 나눠

운영을 하다 보니 대부분 유격수로 뛰었다"며 "지금 김선빈의 부상으로 수비가 중요한 상황인데 2루에서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 요구하는 부분을 잘 하고 있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수비에서는 완벽하게 김선빈의 공백을 지웠지만 타격은 아쉬움이 있었다.  
김규성은 김선빈이 두 번째 부상을 당했던 지난 5일 NC전에서 바로 대수비로 투입됐다. 이 경기를 시작으로 지난 19일 두산전까지 12경기

에 김규성은 23타수 3안타, 0.130의 타율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4개의 볼넷을 골랐지만 4차례 삼진도 기록했다.  
하지만 윌리엄스 감독은 부족한 타격보다는 '수비'라는 자신의 역할을 해내는 어린 선수의 정신력에 집중했다.  
윌리엄스 감독은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타격에 대한 아쉬움과 부담감 속에서도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타격의 고민이 수비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성숙함'에 높은 점수를 줬다.  
타격 부진이 수비 실수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비를 하면서도 타격 고민을 하느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김규성은 이런 면에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였다.

이어 윌리엄스 감독은 "매일 열심히 하고 있다. 볼을 맞는 부분도 좋아지고 있다. 점점 좋아지고 있다"며 "타격같은 부분은 노력하면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하는 자세가 좋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윌리엄스의 기대감은 이내 현실이 됐다. 지난 21일 한화 이글스와의 원정경기에서 김규성은 좋은 수비로 선발 가능성을 웃게 했다. 그리고 4-0으로 앞선 4회초에는 타석에서도 가능성을 웃게 했다.  
김규성은 한화 선발 김범수의 5구째 143km짜리 직구를 우중간 담장으로 넘겼다. 김규성의 데뷔 첫 홈런이었다.  
동료들은 홈런을 날리고 들어온 김규성을 '무관심 세리머니'로 맞으면서 웃음을 자아내게 했다. 김규성은 지난해 7월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고졸 4년 차 예비역 선수다.  
캠에서 '고졸 루키' 박민, 홍중표와 함께 윌리엄스 감독의 특별 조련을 받았던 기대주이기도 하다. 그리고 올 시즌 김선빈이 연달아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프로 데뷔 시즌에 많은 경험을 쌓고 있다.  
윌리엄스 감독의 이야기대로 김규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수비'를 착실하게 해주고 있다. 안정된 수비에 연습경기에서 눈길 끌었던 뜨거운 타격까지 보여준다면 김선빈이 부상으로 자리를 비운 KIA 입장에서는 최고의 '백업' 카드를 얻게 된다.  
기회를 시간을 보내고 있는 김규성이 타격에서도 자신감을 얻어, 내야 경쟁에 불을 붙일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내 캐디가 경쟁상대라고?

### PGA 투어 3M 오픈...트레이너, 캐디 크로퍼드와 동시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푸에르토리코 오픈 우승자 마틴 트레이너(미국·사진)가 자신의 캐디와 PGA투어 대회에서 경쟁자로 만난다.  
트레이너의 캐디인 아론 크로퍼드(캐나다)는 23일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인근 TPC트윈 시티스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PGA투어 3M 오픈에 출전한다.  
크로퍼드는 빅토리 골프 링크스(파71)에서 치른 월요일전에서 8언더파 63타를 쳐 이 대회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그는 월요일전 출전권이 걸린 '월요일 선의 예선'을 거쳐 단 2명에게 주어지는 대회 출전권을 땀다.  
그는 이번이 첫 PGA투어 대회 출전이다.  
트레이너의 전담 캐디인 크로퍼드는 3M 오픈 직전까지 트레이너의 백을 땀다. 트레이너도 3M 오픈에 출전하기에 둘은 선수와 캐디가 아닌 경쟁자로 같은 필드에서는 셈이다.  
크로퍼드는 작년까지 PGA투어의 하위 리그인 캐나다 매켄지 투어에서 뛰면서 PGA투어 진출을 노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매켄지 투어가 문을 닫자 친구인 트레이너의 캐디를 맡았다.  
그는 "트레이너한테 '이번 대회는 네가 손수 백을 메고 경기하라'고 말해줬다"고 웃었다.  
트레이너는 "연습 라운드를 하기로 했는데 그가 코스에 나타나지 않아서 웬일인가 했는데 약속한 시각이 좀 지나서 '월요일예선을 치렀는데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오더라"면서 "새로 캐디를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맨 먼저 들었다"고 말했다.  
둘은 다행히 1, 2라운드에서 같은 조에 편성되지는 않았다.



크로퍼드는 "어렵게 잡은 기회이니만큼 잘하고 싶다. 내가 우승하지 못하면 친구인 트레이너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박인비, 브리티시 오픈 우승 노린다

### 다음달 20일 스코틀랜드서 열려...대니얼강·이민지 출전

지난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브리티시 여자오픈에서 깜짝 우승한 시부노 히나코(일본)가 코로나19 사태에도 영국 원정에 나선다.  
시부노는 다음 달 13일부터 16일까지 스코틀랜드의 노스버위의 르네상스 골프클럽에서 열리는 스코티시 여자오픈 출전을 확정했다고 22일 골프채널이 보도했다.  
시부노는 스코티시 여자오픈에 이어 8월20일부터 나흘 동안 스코틀랜드의 로열 트루 골프클럽에서 치러지는 브리티시 여자오픈 타이틀 방어에도 도전한다.  
지난해 브리티시 여자오픈 우승에도 LPGA투어 입회를 마다하고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에 남았던 시부노는 올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JLPGA투어 대회가 단 한 차례밖에 열리지 않아 휴업 상태다 다르없었다.  
세계랭킹 5위 히타오카 나사(일본)도 출전하기로 했지만 LPGA투어의 핵심인 한국 선수는 대거 불참한다.  
고진영, 박성현, 김세영, 김효주, 박인비, 이정은, 허미정 등 세계랭킹 20위 이내 한국 선수 전원이 출전하지 않는다.  
다만 박인비(사진)는 브리티시오픈에는 출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건강과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넬리 코르다, 렉시 톱슨(이상 미국)도 빠져 세



세계랭킹 10위 이내 선수는 대니얼 강(미국), 브룩 헨더슨(캐나다), 이민지(호주) 등 3명만 출전한다.  
리디아 고(뉴질랜드), 에리아 쥘타누칸(태국), 스타이시 루이스, 크리스티 커(이상 미국) 등은 출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SF, MLB에 세운 두 개의 이정표

### 감독 최초 인종차별 반대 '무릎 꿇기'...여자 1루 주루 코치 탄생

미국프로야구(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21일(한국시간) 오글랜드 애슬레틱스와 치른 연습 경기에서 두 개의 이정표를 세웠다.  
미국 사회의 인종 차별과 불평등에 반대해 온 게이브 케플러(44) 감독이 MLB 감독으로는 처음으로 국민 의례 때 무릎을 꿇는 게 첫 번째다.  
케플러 감독은 인종 차별 저항 운동인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의 상징적인 포즈로 자리 잡은 '무릎 꿇기'를 메이저리그 사령

탑으로는 최초로 실천했다.  
또 다른 하나는 여자 1루 주루 코치의 탄생이다. 케플러 감독은 경기 중반 엘리사 내킨(30) 보조 코치를 1루 주루 코치로 기용했다.  
청백전에서 종종 1루 코치로 나선 내킨 코치는 비록 연습경기였지만, 다른 팀과의 공식 경기에서 1루 코치 박스에 등장해 MLB 경기에서 출전한 첫 여성 코치라는 새 역사를 썼다.  
고교와 대학 시절 소프트볼 선수로 뛴 내킨 코치

는 2014년 샌프란시스코 구단 운영부에 합류해 건강 관련 업무, 신인 지명, 선수 개발 직무 등을 6년간 수행했다. 이어 올해 1월 마침내 샌프란시스코 구단 코치진에 합류했다.  
스포팅뉴스에 따르면, 내킨 코치는 선수들의 기량 증진과 클럽하우스 문화 개선 등의 업무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한다.  
케플러 감독은 NBC 방송 인터뷰에서 "내킨을 아주 능력 있는 코치로 평가한다"며 "우리 팀 문화와 코치로서의 자세를 잘 이해하는 내킨 코치는 선수들과 코치들을 더 나은 사람들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샌프란시스코 외에도 뉴욕 양키스, 시카고 컵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3개 팀은 올해 여성 지도자를 마이내리코 코치로 채용했다. /연합뉴스